

# 전차 구경

##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9.10.23	조사자	송민호	유형구분	문화예술-전문가제안
------	------------	-----	-----	------	------------

대상명	전차구경
-----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작가	하근찬	출간연도	1976
내용	<p>지하철이 개통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조주사는 이튿날 아침 손자인 기윤이와 함께 집을 나섰다. 물론 지하철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다.</p> <p>한 손에는 도시락 보자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저 지하철만 타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소풍을 가는 셈이다. 조손(祖孫)이 말이다.</p> <p>기윤이는 이렇게 할아버지와 둘이 도시락을 싸들고 놀러 가기는 처음이어서 여간 재미 좋지가 않은 모양이다. 곧장 폴짝폴짝 뛰다. 조주사 역시 일부러 하루를 내어 아침부터 손자를 데리고 놀러 나가는 처음 있는 일이다.</p> <p>부동산 소개 영업소, 즉 복덕방이 일자리니 뭐 일요일이 아니라고 해서 자리를 비워 놓고 놀러 못 갈 것은 없지만, 좌우간 좀 수다스럽다면 수다스럽고, 별난 성미라 하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수다스럽거나 별난 성미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주사에게는 남달리 지하철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것이다. 지하철, 즉 땅 밑을 달리는 전차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속도는 얼마나 되며 내부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운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구체적인 호기심,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기보다도 관심이라고 하는 편이 옳겠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p> <p>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옛날 전차의 운전사였던 것이다.(중략)</p> <p>“할아버지, 여기가 지하철 역이에요?”</p> <p>“응.”</p> <p>“야, 좋다. 번쩍번쩍한다.”</p> <p>기윤이는 곧장 사방을 두리번 거린다.</p> <p>조주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넓고 깨끗한 정거장이 땅 밑에 마련되었다니 놀라운 모양이다. 입을 약간 벌리고 있다.</p> <p>“할아버지.”</p> <p>“응?”</p> <p>“여기가 땅 밑이지요?”</p> <p>“그래.”</p> <p>“땅 밑인데 굉장히 환하다. 야-”</p> <p>“허허허.....”</p> <p>서울역까지 승차권을 산 조주사는 기윤이의 손을 잡고 사람의 물결에 섞여 개찰구를 빠져 나갔다. 개찰구를 나가 직각으로 꺾어져 돌아, 이번에는 어찌 된 구조인지 계단을 오르게 되어 있다.</p> <p>조주사는 고개를 기울인다. 묘하게 되어 있구나 싶은 것이다.</p>		

<p>평가</p>	<p>하근찬은 전쟁 이후 역사적 격랑에 휩쓸린 사람들의 고난을 주로 다뤘던 &lt;수난시대&gt;와 &lt;흰종이수업&gt;을 통해 50년대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거듭난 작가이다. 특히 그는 일제강점기 말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농촌에서 사람들이 겪은 삶의 수난을 밀도 있게 그려내었다. 특히 이 두 작품은 오랫동안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p> <p>하근찬의 이 &lt;전차구경&gt;은 1976년 1월 &lt;&lt;문학사상&gt;&gt;에 발표된 작품으로, 1974년 처음으로 개통된 지하철 1호선을 타러 간 조주사와 손자의 하루 여행을 다루고 있다. 조주사는 30년 이상 전차를 운전한 전차 운전수였다가 은퇴한 인물인데, 지하에 전차가 개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업적인 호기심에 누구보다도 먼저 손자의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러 청량리역으로 간다.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조주사는 자신이 평생 몰아온 전차를 생각하면서 서울과 전차에 대한 추억에 잠긴다. 철없는 손자는 광고에 나온 부라보콘이 먹고 싶다며 할아버지를 조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렇게 서울 여행을 계속한다.</p> <p>이 소설에는 지하철이 개통될 당시 서울의 장면이 생생하게 들어 있다. 분명 소설을 쓰기 위해 취재를 했을 하근찬은 이 소설에서 전차의 모델이라든가, 지하철역과 지하철의 당시 상황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묘사해두고 있다. 이 소설은 서울의 역사로서, 그리고 기차와 전차, 그리고 지하철의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p>
-----------	---

## 2.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참고)

이름	하근찬(河瑾燦, 1931년 ~ 2007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1년 경상북도 영천 출신.</li> <li>- 1945년 전주사범학교 재학 중 교원시험 합격.</li> <li>- 1954년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들 가르치다가 부산 동아대학교 토목과 입학.</li> <li>- 1957년 군대문제 등의 이유로 동아대학교를 중퇴하고, 군대에 입대하였으나 다음해 의병제대하였음. 이때 단편소설 &lt;수난이대&gt;가 &lt;&lt;한국일보&gt;&gt;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li> <li>- 1969년 전업작가 생활을 하기 전까지 &lt;&lt;교육주보&gt;&gt;, &lt;&lt;대한 새교실&gt;&gt; 등 교육 관련 잡지의 기자로 직장 생활.</li> <li>- 2007년 11월 25일 작고</li> </ul>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7년 &lt;수난이대&gt;</li> <li>- 1959년 &lt;흰종이수염&gt;</li> <li>- 1963년 &lt;왕릉과 주둔군&gt;</li> <li>- 1971년 &lt;일본도&gt;</li> <li>- 1972년 &lt;기울어지는 강&gt;</li> <li>- 1973년 &lt;직녀기&gt;</li> <li>- 1976년 &lt;임진강 오리떼&gt;</li> <li>- 1979년 &lt;남한산성&gt;</li> <li>- 1981년 &lt;월레는 본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월레소전&gt;</li> <li>- 1984년 &lt;산에 들에&gt;</li> </ul>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 한국문학상</li> <li>- 1983년 조연현문학상</li> <li>- 1984년 요산문학상</li> <li>- 1989년 류주현문학상</li> <li>- 1999년 보관문화훈장</li> </ul>	
기타사항	-	

### 3. 기타사항

#### □ 관련기사 - '이달의 소설'

이병주작 「여사록」 짙게 충기는 허무주의 냄새  
하근찬작 「전차구경」 조용하게 관조해보는 세태

(중략)

하근찬의 「전차구경」(문학사상1월호)은 지금은 복덕방을 하고 있는 퇴역전차운전사의 지하철 나들이를 통해 변모한 세태를 조용하게 관조하고 있었다.

전동차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현대화되고 승무원의 제복도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입었지만 친말감이 없고 인정머리가 없어진 것이라든지 박하사탕대신 초콜릿을 더 좋아하는 손자녀석 등등, 지하철을 타면서 얻은 쑥쓰름한 기분을 달랠겸 남산 어린이놀이터에 옮겨놓은 전차를 구경하러 간다. 그러나 친구의 퇴락한 모습을 보는 듯한 기분이 되어 반가우면서도 약간 민말스럽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기분이 된다.

쌀로 만들지 않아서 옛날과는 맛이 판이하게 달라져버린 옛이라든지 깨보다는 다른걸 많이 넣어서 깨맛이 전혀 나지않는 깨엿등등... 내실보다 겉만 번지르르 한 세태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안 일제말엽에 경도되었던 하근찬이 오랜만에 시야를 바꾸어 본 작품이다. 남산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전차가 비바람에 퇴색하듯 조주사의 인생도 벌써 석양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하략)

출처: 동아일보 1975년 12월 27일자 기사내용(<https://newslibrary.naver.com/>)